

한국계 감독·배우 美서 일냈다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 골든글로브 TV 미니시리즈 3관왕 현대인 분노조절장애 다뤄

이성진 감독, 연출·제작·극본 스티븐 연, 한국계 첫 남우주연상 에미상 시상식도 13개 부문 후보

한국계 감독이 연출하고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 (원제 BEEF)이 미국 영화상 골든글로브 TV 미니시리즈 부문 주요 상을 휩쓸었다.

한국계 감독과 배우의 또 다른 작품으로 기대를 모았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수상이 불발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저녁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성난 사람들'은 TV 미니시리즈 및 영화 부문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인 한국계 스티븐 연도 같은 부문 남우주연상을 가져갔다.

한국계 배우의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대역을 맡은 엘리 워는 같은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이로써 '성난 사람들'은 총 3관왕에 올랐다.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겸 감독 이성진이 연출과 제작, 극본을 맡았고, 스티븐 연을 비롯한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성난 사람들'은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소한 사고로 화가나 복수전을 벌이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10부작 드라마로, 지난해 4월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속도감 있는 전개로 시청자의 몰입을 끌어내 호평받은 이 작품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난 사람들'은 올해 에미상 시상식에도 11개 부문 13개 후보로 지명돼 있다.

스티븐 연은 에미상 미니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는데, 이번 골든글로브 수상으로 향후 에미상 수상에도 정신회가 켜졌다.

스티븐 연은 이날 수상 소감에서 "정말 신기하다. 평소 내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대개 고독과 고립에 관한 것인데, 이곳에서 이런 순간을 맞으니 다른 모든 사람이 떠오른다. 마치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같은 느낌"이라며 가족과 제작진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영화 드라마 부문 작품상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에 돌아갔다. 이 영화는 감독상, 남우주연상(킬리언 머피), 남우조연상(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음악상도 받아 5관왕에 올랐다.

뮤지컬·코미디 작품상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 애니메이션 작품상은 미야자



美 골든글로브 3관왕을 차지한 '성난 사람들', 이성진 감독(가운데)과 배우 스티븐 연(좌), 엘리 워.



'성난 사람들'의 한 장면

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받았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가 수상한 바 있는 비영어권 영화상은 프랑스 영화인 쥐스틴 트리에 감독의 '추락의 해부'에 돌아갔다. 이 영화는 각본상도 받았다.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 문'에서 주연한 릴리 글래드스톤이 가져갔다.

뮤지컬·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과 남우주연상은 각각 에마 스톤('가여운 것들')과 폴 지어마티('바튼 아카데미')가 받았다.

그레타 거윅 감독이 연출하고 마고 로비가 주연한 영화 '바비'는 시네마틱·박스오피스 성취상과 주제가상을 받아 2관왕을 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이 연출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영화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비영어권 영화상, 영화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 총 5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다.

송 감독의 데뷔작이기도 한 이 영화는 어린 시절 헤어진 뒤 20여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한 두 남녀를 그린 영화로,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와 한국 배우 유태오가 주연했다.

시리즈 드라마 부문에선 HBO 드라마 '석세션'이 작품상, 여우주연상(새라 스누크), 남우주연상(키에런 켈킨), 남우조연상(매슈 맥패디언)을 휩쓸며 4관왕에 올랐다.

뮤지컬·코미디 작품상은 '더 베어'가 가져갔다. 이 작품은 여우주연상과 남우주연상도 받아 3관왕을 했다.

/연합뉴스

역사·문화의 시각으로 본 '광주 음성'

김원중 전 지역문화콘텐츠 연구실장 등 '광주음성 이야기' 발간



남문(진남문)쪽에서 바라본 광주음성 모형(광주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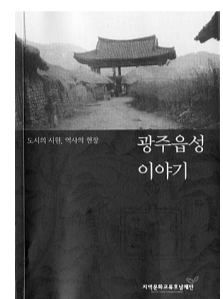
"광주음성은 왜구가 극성을 부리던 고려시대 우왕 4~5년(1378~1379) 무렵에 처음 쌓았다. 초축 연대를 고려 말로 보는 것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내 광주음성터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광주 무오(光州戊午)' 광주 기미(光州己未) 명(銘) 등의 기와편과 고려-조선 초기의 자기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물이다."

김원중 전 지역문화콘텐츠 연구실장은 광주의 역사문화자산을 토대로 콘텐츠와 문화프로그램이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광주음성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조명할 책이 발간됐다. 김원중 연구실장을 비롯해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김옥렬 다큐디자인 대표 등이 저자로 참여한 '광주음성 이야기'는 도시의 시연, 역사의 현장인 광주음성을 다각도로 조망한 책이다.

김 연구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자료 조사를 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책의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며 "이후 새로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책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읍성이 있던 도시들 예를 들어 대구 동성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성이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이름이 생겨났다"며 "현재 광주는 읍성을 중심으로 한 도로는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성이었던 무진도독성에서 석성인 광주음성으로의 변화과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읍성은 규모 면에서 다른 읍성에 비해 규모가 컸었다. 또한 읍성은 평지에 축성됐으며 광주의 행정, 군사 중심지로



광주음성 이야기

가능했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는 읍성 내 관아에 머물러 지역을 통치했다.

책에는 광주음성 주변에 땅을 파서 고랑을 내거나 자연 하천 등 장애물을 이용해 성의 방어력을 높이는 해자(壕子)와 목책(木柵)을 설치한 흔적 등

의 내용이 실려 있다. 저자들은 지난해 희경루 중건으로 광주음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당초 희경루는 충장로 우체국 부근에 1451년 태수 안철석에 의해 창건됐으며, 1534년 1차 중건 이후 이번에 500여 년만에 광주공원으로 옮겨 2차 중건이 이뤄졌다.

김 연구실장은 "한말의 어지러운 상황,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졌던 읍성 유적들이 개발을 계기로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흩어지고 말았다"며 "광주음성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산과 의미 등을 담보로 광주 폴리 등이 추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덕진 재단 이사장은 "광주음성을 삶으로서의 역사 이야기로 다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창작의 기반을 조성하고 역사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핵심브랜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문화누리카드, 9만여명에 年 13만원 혜택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광주문화재단의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올해에도 계속된다.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연 13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총 9만 4800여 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층을 대상으로 국내여행과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다. 작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후 사용 인력이 있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근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등에서 선착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연말까지이며 온·오프라인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

보유한 카드의 유효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이거나 복지시설 발급자, 전액 미사용자 등은 자동 재충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카드 발급 절차 및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 /박성천 기자 skypark@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